

생산자 직매장 개설한

대한양계협회 안양분회

취 재 부

금번의 장기적이고 심화된 형태의 양계불황은 참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양계산물유통

단계에서의 중간상인들의 극심한 횡포였다. 최근 경기, 서울양계협동조합을 필두로 생산자가 유통에 직접 참여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생산자 직매장을 처음 개장 하던날
의 기념촬영 분위원은 이날 직접 가두에 나서 직
매장 개장의 취지를 소비자에게 홍보했다.

를 동시에 보호코자 하는 움직임이 양계업계에 일고 있다. 지난 5월15일 안양중앙시장에 설치된 계육 생산자직매장은 안양계우회원들이 출자하여 시도된 계육생산자직매장—

1972년 6월 안양지역양계인 10명으로 안양축산인동우회로 발족되어 75년 2월 회원 40명으로 증원과 동시 안양계우회로 개칭하여 76년 3월 대한양계협회 안양분회로 가입되어 현 8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안양분회는 그들의 「특별한 단합」으로 대체로 잘 알려진 계우회이다. 특히 봄과 가을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안양양계세미나는 늘 그 주제가 좋아 양계인의 관심을 모으곤 했던 것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특히 78년 추계강습회에서는 질병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IB, 감보로 병의 국내발생여부에 관한 내용이 최초로 논의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수준높은 세미나를 끝



지키고 있다.

「생산자직매장」 정확한 지혜가이런 중앙과 품질에 관해 강연에



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늘 공부하는 자세로 양계에 임하고 있다는 태도 외에도 부근에 위치한 가축위생연구소 지역 과와의 멜수 없는 연분도 작용한다

記者가 안양 3동 811번지에 위치한 대한양계협회 안양분회를 찾은날은 6월11일 양계불황의 수심으로 인해서인지 많은 회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여러가지 문제에 관해 숙고하고 있을 때였다 우선의 관심사인 생산적매장의 운영실태에 관해 “잘 돼가십니까?”하는 성급한 질문을 던지는 記者에게 “웬걸요. 어려운 점도 많고 아직 궤도에 오르지도 않아 잘안돼가는 것 같습니다”하는 원영윤 분회장은 바로 뒤이어 “그러나 우리 이익을 보전 손해를 보전 생산자와 소비자를 공히 보호키 위해 언젠가, 누군가가 해야 할일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모든 회원들이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습니다”는 얘기가 덧붙여 안양분회원들의 비장한 각오를 피부로 느끼게 하였다



원영윤 분회장



안양시장내에는 100여곳의 닭집이 있어 그 판매경쟁이 다른 지역보다 더 치열하다

회원
 양영원, 권태웅, 박승민, 이사,
 안양분회 회장, 이광재, 회원,
 박중희, 간사



지난 4월 육계불황이 극에 달하였을 때 안양분회의 육계분과위원들이 모여 첫째는 유통에 직접 참여를 시도하고 둘째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생산자 직매장을 설치키로 하는데 만장일치의 결의를 보았다. 13명이 1인당 평균 120만원씩 출자하여 마련한 기금이 1,500만원 정도로 이 기금으로 설치한 안양중앙시장내 생산자직매장의 지난 1개월간 판매실적은 1,500마리 정도로 1일 평균 50마리를 판매했다. 가격은 현재 kg당 800원으로 이는 마리당 200원의 마진을 두고 있어 최소한의 마진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처럼 겉으로 보아 부진한 경영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것은 안양 전체시장의 닭 값이 「생산자직매장」의 가격 800원과 같다는 점이 있다. 그러니 육계과동당시 닭 값이 kg당 400원까지 하락했을 때도 소매가격은 900원에서 1,000원 까지 받던 중간상인들에게 현재 800원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가격통제기능은 충분히 발휘되었다는 것

이다.

記者가 안타까웠던 것은 좀더 풍부한 자금을 모아 전체 안양 시내에서 만이라도 가장 위생적이고 모범적인 직매장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분회원들의 피나는 염원이었다. 회원들의 양계장이 거의 대부분 그린벨트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증축 등에 유난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회원들은 지금 계속 직매장에서 일하는 고용원의 급료를 1인당 월 1만원씩 거두어내고 있는 실정이었다. 중간상인들의 부당한 폭리를 통제한 데 성공한 분회원들은 오늘도 생산자직매장의 운영을 일일히 체크해가며 장기적인 소비촉진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모든 양계인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생산자 직매장이 어떤식으로 성공하느냐에 따라 생산자가 직접 유통에 참여하는 시대가 올것인가의 여부가 판명될 것이라고 분회원 모두가 믿기 때문에...